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6장 기도와 간구

『산상설교』 하권 제36장, 인쇄 79~9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11~15

❓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밥과 용서와 보호를 매일 구해야 하고, 남을 용서하는 일은 내 용서와 무슨 상관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주기도의 후반부를 세 간구(양식, 용서, 시험과 악)로 나눈다. 이 세 간구가 몸·혼·영을 모두 다룬다는 점과, 그 배열 순서가 옳다는 점을 보인다. 이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가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기도의 본질을 끌어낸다. 그다음 용서의 간구를 두고 두 부류의 반대자에게 답한다. 하나는 신자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도가 율법적이라 지금 교회와 상관없다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서 지켜 달라는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는 데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야 한다는 말로 설교를 맺는다.

📜 절별 정리

📜 1. 세 간구 — 포괄성과 순서

로이드 존스는 주기도를 설교하는 일 자체가 외람되게 느껴진다고 고백하며 시작한다. 그래도 연약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우리는 이 말씀을 분석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후반부 간구를 넷으로 보는 이도 있지만 그는 셋으로 나눈다. 새 간구는 '그리고(and)'로 시작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회생활), 영(하나님과의 관계)을 모두 담는다. 그는 롱펠로우의 시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를 들어, 사람이 티끌 이상의 존재라고 말한다. 순서도 놀랍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높은 간구 바로 뒤에 '일용할 양식'이 온다. 먼저 살아 있어야 하고, 그다음 죄책에서 씻겨야 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닥칠 죄의 세력에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세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 후반부 간구는 셋: 양식·용서·시험과 악
2. 몸·혼·영, 전인(全人)의 필요가 다 담겼다
3. 주님은 큰 표제를 주시고, 세부는 우리가 채운다
4. 순서: 생존 → 죄 씻음 → 장래의 보호
5. 참된 삶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다

> **요한복음 17:3**
>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생존 너머의 '삶다운 삶'을 보여 준다
>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요한복음 10:10**
>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심이다
>
>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요한일서 1:4**
> 모순 많은 세상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교제를 통해)
>
>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일용할 양식'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로이드 존스는 그 뜻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로 본다. 음식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놀라운 점은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의 가장 사소한 일까지 살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구속과 성육신의 의미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일로, 땅에 있는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과 이어 준다. 다만 약속된 것은 필수품이지 사치품이나 넘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무엇이 필수품인지에 대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늘 같지는 않다.

1. 양식 =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
2.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관심을 두신다
3. 하나님 나라 간구 뒤에 바로 '양식'이 온다
4. 약속은 필수품이지 사치품이 아니다
5. 우리의 필수품관 ≠ 하나님의 필수품관

> **마태복음 10:30**
>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가장 작은 일도 아신다
>
>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 **이사야 57:15**
> 지극히 높으신 분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
>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 **시편 37:25**
>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못 보았다, 필수품 약속은 헛되지 않다

>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 3. 아시는데 왜 구하나 —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떤 이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왜 아뢰어야 하느냐고 묻는다. 로이드 존스는 이 질문이 기도의 핵심으로 이끈다고 본다. 우리가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 주는 데 있다. 그는 A. B. 심프슨의 예화를 든다. 하나님이 은혜를 한 덩어리로 다 주시면 우리는 선물만 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땅의 아버지도 선물을 다 써 버릴 때까지 찾아오지 않는 아들에게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은행에 큰돈을 맡겨 두고 아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끊게 하듯 은혜를 나눠 주신다. 기도는 서명한 수표를 내미는 일과 같다. 또 이 간구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까지 하나님께 의존함을 일깨운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거두시면 최신 농기구와 화학약품으로도 곡식 한 톨 거둘 수 없다. 자연법칙을 조금 안다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1.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다
2. 한 덩어리 은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3. 기도 = 하나님이 보증한 수표를 내미는 일
4. 하나님은 자녀의 서툰 말을 기뻐 들으신다
5. 하루에 한 번은 생존이 그분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 **마태복음 6:11**
>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 날마다 의존하라는 명령이다
>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마태복음 6:9**
> '아버지'라는 부름이 기도를 부자 관계로 규정한다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가치는 기도가 우리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남을 유지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 4. 용서의 간구 ① — 신자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첫째 난제는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부류다. 한 부류는 칭의를 근거로 든다. 칭의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미 다 처리되었으니 또 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다른 부류는 신자 안에서 죄가 뿌리째 뽑혀 완전해졌다는 성결론을 근거로 든다. 로이드 존스는 둘 다 오류라고 본다. 발 씻기 장면에서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다. 온몸을 씻는 것은 한 번(칭의)이지만, 세상을 지나며 묻는 때는 계속 씻어야 한다. 요한일서는 비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한다. 이 기도는 '우리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있는 자녀의 기도다. 자녀는 아버지를 슬프게 했음을 알면 곧 자백하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한다. 자기 마음이 검은 줄 모르고 이론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사람이다.

1. 칭의는 한 번, 발 씻음은 계속이다
2. 요한일서 1장의 자백은 신자에게 한 말이다
3.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의 기도다
4. '죄 없다'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5. 큰 성도일수록 죄를 더 깊이 느낀다

> **요한복음 13:9~10**
> 목욕(칭의)과 발 씻음(날마다의 용서)을 구분한다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일서 1:9

신자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하고 깨끗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8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 완전 성화론에 대한 반박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위대한 성도일수록 죄의식과 내부의 죄를 더 크게 느끼는 법입니다."

📜 5. 용서의 간구 ② — 율법적인 기도인가

둘째 난제는 이 기도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기도라서 그리스도인이 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기도가 예수님 당시 청중과 미래 '왕국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본다. 주기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도 없고 속죄에 대한 말도 없다는 것이 이유다. 로이드 존스는 세 가지로 답한다. 첫째, 본문은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용서한 '것 같이'"다. 둘째, 그 논리라면 탕자 비유도 버려야 한다. 탕자 비유에도 속죄나 예수의 이름이 없다. 주님은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용서의 방법이 아니라 용서의 필요와 사실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야 한다. 셋째, 어느 시대든 엄격한 법적 근거로 용서받는다면 아무도 용서받지 못한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이전이든

간구의 참뜻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 드러난다. 주인에게 큰 빚을 탕감받고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종의 이야기다. 용서받은 증거는 남을 용서하는 데서 나타난다.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이 기도 직후 14~15절에서 이 내용을 다시 말씀하신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된 용서는 마음을 깨뜨리고, 깨어진 마음은 남을 용서한다. 그러니 이 간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기도가 된다.

1. '때문에'가 아니라 '같이'다
2. 탕자 비유도 속죄를 말하지 않는다
3. 법적 근거로는 어느 시대도 용서받지 못한다
4. 용서받은 증거 = 남을 용서함
5. 이 간구는 속죄와 은혜로 가득하다

> **누가복음 15:11~32**
>
> 속죄 언급이 없어도 복음을 담는다, 세대주의 논리 반박
>
>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

> **로마서 3:10**
>
> 의인은 하나도 없다, 법적 근거의 용서는 불가능하다
>
>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로마서 3:23**
>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율법은 모두를 정죄한다

요한복음 16:12

제자들이 감당 못할 진리, 속죄론을 미루신 이유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23~35

탕감받고도 용서 안 한 종, 용서받은 자의 표지를 보여 준다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

마태복음 6:14~15

기도 직후 반복하신 경고, 이 간구의 중대함을 보여 준다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 6. 시험과 악, 그리고 송영

마지막 간구는 사탄이 유혹할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고 하지 마실지 지시하는 기도는 아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시키려고 자녀를 시험(test)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넘어지기 쉬운 유혹(temptation)의 자리에 두지 마시고 지켜 달라고 구할 수 있다.
겟세마네에서 하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다. '악'을 '악한 자'(사탄)로만 좁히는 해석도 있지만, 로이드 존스는 그러면 뜻이 제한된다고 본다. 사탄의

거룩해지기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는 사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도 매우 적절한 결말이다. 기도는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멈출 수 없고, 시작처럼 찬양으로 끝나야 한다.

1. 하나님께 지시가 아니라 보호를 구한다
2. '악'은 사탄·내 마음·세상의 악 모두다
3. 목적은 거룩 자체보다 끊김 없는 교제다
4. 송영은 사본상 불확실해도 적절한 결말이다
5.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난다

> **마태복음 26:41**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간구의 뜻을 풀어 준다
>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 **마태복음 6:13**
> 한 간구를 두 각도(시험과 악)에서 구하는 본문이다
>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성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우리의 기도에서 찬양과 감사의 분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마태복음 6:9~13)다.

간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의 한 항목이다.

칭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일이다.

전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쳐 주시는 것이다.

성화 / 완전 성화론
성화는 신자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고, 완전 성화론은 신자 안에서 죄가 완전히 뿌리 뽑힌다고 보는 주장이다.

세대주의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어, 산상설교 같은 가르침이 지금 교회가 아니라 다른 시대(왕국시대)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다.

속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대신 치르신 일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이다.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짧은 고백이다("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주기도의 세 간구(양식, 용서, 시험과 악)는 몸·혼·영 전체를 아우르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보여 준다.
-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구하게 하시는 것은 자녀와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 신자도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하며, 남을 용서함은 우리가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증거다.
- 시험과 악에서 지켜 달라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지 않게 하는 데 있다.
-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야 하며, 찬양과 감사의 분량이 영성의 크기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